자(自) 문화 시각 언어로서의 병풍의 한국 샤머니즘 문양에 대한 연구

복(福)을 주제로 한 조선시대 병풍을 중심으로

Korean Shamanism Pattern of Folding Screen as Visual Language of Self-culture

Based on the Folding Screen of Chosun Dynasity for Bless

주 저 자 : 김인수(Kim, In Soo)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iz2079@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1.3.197

접수일자 2021. 08. 25. / 심사완료일자 2021. 09. 15. / 게재확정일자 2021. 09. 25.

Abstract

Korea has experienced identity confusion and cultural severance undergoing the modernization, Japanese Invasion, Korean War, Westernization, etc. This brought the country with fragmented and institutionalized visual culture, centered on Western culture. In spite of this chaotic history, the shamanism thought has developed becoming the root of Korean visual culture, as the thought has been rooted into our daily lives providing Korean people's cultural basis for a long time. It is the oldest source of mankind's culture which has evolv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society, custom, culture, etc. Korean shamanism, called as shaman culture, has been the component of Korean's inner world, existing on the base of the cul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patterns of folding screens, which connote the Korean shamanism, and search for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visual language and the underlying answer for the basis of the Korean specific formative sense. As such, this study reviewed shamanism and folding screens' patterns via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documents, and then,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hamanism patterns shown in the folding screens. As a result, firstly, there were mainly non-artful and exaggerated patterns. These provided the hint of the beauty of humor. Secondly, in the layout, in order for the maximization of hopes for luck, diagonal composition or inverse perspective were used. Lastly, symbolic and strong colors based on the principle of Eumyang O-haeng (Yin-yang Five Elements), Coexistence & Conflicts.

We hope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the basic research material for Korean specific visual language and expects the national level new attention 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design.

Keyword

Shamanism(샤머니즘), Folding screens(병풍), Self culture visual language(자문화 시각언어)

요약

한국은 근대화,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서구화 등을 거치면서 정체성 혼란과 문화 단절을 겪었다. 이로 인해 서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제도화된 시각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혼돈의 역사에도 오랜 시간 한국인의 문화적 토대를 이루며 우리 일상에 널리 뿌리내린 샤머니즘 사상은 한국 시각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발전해 왔다. 그것은 사회, 관습, 풍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및 발전해 온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의 근원이다. 무속이라고 일컫는 한국의 샤머니즘은 문화의 저변에 깔려 한국인의 내면세계를 형성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 샤머니즘이 내포된 병풍의 문양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시각언어의 근본적 토대와 한국적 조형의식의 형성 근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自)문화 시각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자료 등을 통해 샤머니즘과 병풍의 문양을 고찰한 후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무기교적이며 과장된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학미를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레이아웃에서는 복을 바라는 염원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사선 구도나 역원근법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한 상징적이고 강렬한 색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 시각언어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재고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샤머니즘

2-1. 샤머니즘의 개념

2-2. 샤머니즘의 관점

2-3. 자(自)문화 아이덴티티관점에서 샤머니즘

3. 한국 샤머니즘 문양

3-1. 문양의 개념과 기능

3-2.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문양의 분류

3-3. 문양을 통해 나타난 한국적 샤머니즘 양상

4. 병풍을 통해 본 샤머니즘 문양

4-1. 병풍의 기원 및 개념

4-2. 한국 샤머니즘의 관점에 따른 병풍

4-3.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

4-4.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한 샤머니즘 사상은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각 민족의 사회, 풍토에 따라 여러 갈래로 변화한 인류의 가장 오랜 문화의 근원이다. 한국의 샤머니즘 역시 한민족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 이래 지금까지도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자연스레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형성해왔다. 오늘날까지도 민속학, 인류 문화학, 종교학 등 각계각층에서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한국적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을 주제로 조선시대 병풍에 나타난 한국 샤머니즘 문양에서 한국 자(自) 문화의 시각언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자 문화 시각언어를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인문, 종교, 민속학,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병풍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과 도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병풍 총 21점은 “화복”과 “기타”로 분류한 후 샤머니즘 성격이 옅은 “벽사사상과 민족사상”, “덕복과 길상”을 뺀 나머지 6복인 “장수”, “쌍복”, “자복”, “재복”, “녹복”, “영복”으로 재분류하여 이것을 한국 샤머니즘 문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병풍에 표출된 샤머니즘 문양은 형태, 레이아웃, 색채로 구분하여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샤머니즘

2-1. 샤머니즘의 개념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시베리아의 원시종교 즉,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의 종교체계와 현상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유사종교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서 민족학·종교학·인류학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종교형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샤머니즘은 주술적, 종교적 소통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적인 종교현상을 말한다. 샤머니즘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일리아데는 샤머니즘을 원시적인 종교현상이라 보고 샤먼(퉁구스만주어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의 shaman에서 유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샤머니즘을 체계적인 종교형태를 갖추지 못한 집단적 무의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샤머니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초인적인 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 힘

을 유도 및 조작하여 평안을 유지하고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단정적인 것은 못되지만 독일의 일부 고고학자들은 라스코 동굴(Lascaux Grotto)벽화를 근거로 남서 유럽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샤머니즘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상정하기도 한다. 샤머니즘은 각 민족의 풍토, 사회, 역사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변화한 인류의 가장 오랜 소산이다.

[그림 1] 라스코 동굴 벽화, BC 15000년경

2-2. 샤머니즘의 관점

전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샤머니즘을 하나의 정의나 개념으로 설명하기엔 불가능하다. 샤머니즘에 대한 다방면의 문헌연구를 통해 샤머니즘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샤머니즘은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신비체험에서 터득한 엑스타시(Ecstasy)를 자유로이 반복하는 샤먼 중심의 종교현상이다. 둘째, 한국의 특수한 자연·문화 환경에서 발전하며 주술·종교적 신앙으로 토착화된 무속의 개념이다. 소위 세습무, 강신무, 접신무 등으로 불리는 무당의 샤머니즘이다. 셋째,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는 초자연적인 신령과의 교섭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화복운명을 조절하려는 주술적 종교현상이다.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세 번째 유동식의"화복운명을 조절하려는 주술적 종교현상"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샤머니즘 관점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종교적관점	종교현상	샤먼 중심, 이니에이션의 신비체험에서 터득한 엑스타시 - 망아, 탈아, 황 홀- 를 반복
	무속(巫俗)	한국의 특수한 자연·문화 환경에서 발전한 주술 ·종교적 신앙 -무(巫), 무교(巫敎)
비종교적관점	집단무의식 현상	자연과 인간의 화복운명을 조절

2-3. 자(自)문화 아이덴티티관점에서 샤머니즘

최길성은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8"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관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중 첫째는 자기 문화의 아이덴티티적인 관심에서 연구이다. 탁석산은『한국의 정체성』에서 정체성 판단의 기준으로 "토착화"를 언급한다. 토착화란 겉모습은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내용은 그 지방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자생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적 샤머니즘으로 살아남았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후대에 오면서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외래 종교가 유입되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고 타종교를 수용하면서 결국엔 토착화되었다. 그 예로 신라시대의 화랑도나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등회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본 식민사관적 연구에 대립한 민족 문화의 추구로서 연구이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관점 중, 본 연구는 자기 문화의 아이덴티티관점에서 샤머니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한국 샤머니즘 문양

3.1. 문양의 개념과 기능

문양이란 보통 물건의 외관에 여러 형상이 어우러진 모양을 말한다. 우리말로 '무늬'라고 하며 한자로는 '문양(紋樣)'또는 '문양(文樣)'이라고 한다. 단순한 의미로 문양은 색채나 선 등이 어떤 형태로 형상화되어 미적, 심리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각언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시대적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창조적 산출물이자 시대 언어이다. 그리고 회화·공예·건축 등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의미인 장식적인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징적 기능을 담고 있으며 또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언어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원초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기원을 담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술적, 종교적인 기능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본연구에서 다루는 샤머니즘 문양은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주술적 대상이며 그것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문양의 분류

우리의 전통문양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현실적 바람

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 시각언어이며, 이는 곧 한국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왕의 옷에 들어간 용 문양은 권위, 벽사, 수호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공부방의 병풍에는 부귀와 출세를 상징하는 잉어가 등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림 2] 조선시대 임금 곤룡포 용 문양

이뿐만 아니라 [그림3]은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담은 "백수백복도"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이다. "한국 구복 문양의 문화 콘텐츠 가능성 연구"에서 한지애는 민화 연구가 조자용의 민화에 대한 10개의 화제중 벽사사상과 민족사상을 제외하고 8복으로 재분류하고 그것을 "구복문양"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림 3] 백수백복 기념품(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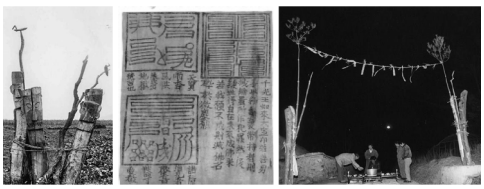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하되 샤머니즘의 성격이 옅은 "덕복과 길상"을 뺀 나머지 6복으로 재분류하여 그것을 한국 샤머니즘 문양이라고 정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장수", 남녀 간의 화목을 바라는 "쌍복",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라는 "자복", 재물로 인한 복을 얻기를 바라는 "재복", 입신양명을 바라는 "녹복",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영복"으로 살펴보았다.

[표 2] 한국 샤머니즘 6복 문양의 의미

분류	의미
장수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 소망
쌍복	부부간에 영원히 연이 끊이지 않고 행복하기를 소망
자복	자식을 건강하게 많이 낳아 잘 살기를 소망
재복	먹을 것, 입을 것 등 재물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
녹복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소망
영복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소망

3.3. 문양을 통해 나타난 한국적 샤머니즘 양상

한국적 샤머니즘 양상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풍농을 기원하거나 축하의 의미로 마을 입구에 솟대를 세웠고 신성함을 표시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 대문 기둥 위 부적이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 금줄을 설치했다. [그림4] 이러한 한국적 샤머니즘 양상은 시대변화에 따라 발전 및 변용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대사회 일상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샤머니즘 문양으로 분류된 6복인 "장수", "쌍복", "자복", "재복", "녹복", "영복"의 문양은 현대사회 우리의 일상 곳곳에 남아 있는 한국 샤머니즘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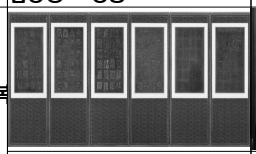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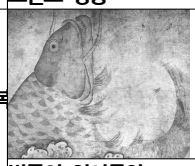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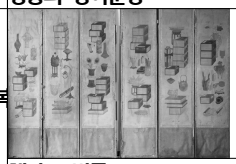
마을입구 솟대 고려시대 부적 마을 어귀 금줄

[그림 4] 솟대, 부적, 금줄

예를 들어 자식을 건강하게 많이 낳아 잘 살기를 소망하는 복인 "자복"을 상징하는 모란도병풍의 모란문양이나 벼슬을 얻어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소망하는 복인 "녹복"의 책가도병풍 문양은 현대사회에서 벽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년 복을 바라는 새해 카드에서는 과거 십장생도 병풍에 나타났던 십장생도 문양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사회 돌상

에 사용되는 병풍에는 과거의 백수백복도 문양이 보여진다. [표3]은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3] 샤머니즘 문양의 전통과 현대 양상

구분	전통	현대
장수		
	십장생도 병풍	새해카드
영복		
	백수백복도 병풍	백수백복도 돌상 병풍
쌍복		
	어해도 병풍	잉어문양 나전액자
자복		
	모란도 병풍	모란 벽지
재복		
	병풍의 잉어문양	잉어문양 열쇠고리
녹복		
	책가도 병풍	책가도 벽지

4. 병풍을 통해 본 샤머니즘 문양

4.1. 병풍의 개념 및 기원

병풍의 본래 역할은 바람을 막거나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치는 물건이다. 그러나 그 기능이 확대되어 그림이나 자수·글씨 등을 감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더 짙어지면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할 수 있다.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당(唐)나라 때에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686년(신문왕 6)에 일본에 금은·비단과 함께 수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도 여러 문집 가운데 병풍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음을 보아 사대부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반인들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조선중기 이후부터 후기에 걸쳐 그림과 수를 놓은 병풍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4.2. 한국 샤머니즘의 관점에 따른 병풍

앞서 언급한 한국 샤머니즘은 비종교적 집단무의식의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신령과의 접촉을 통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술적인 종교현상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화복”과 “기타”로 나누어 병풍을 살펴보고 “화복병풍”과 “기타병풍”으로 유형을 나누어 분류해 보면 [표4]와 같이 요약된다. “화복”과 “기타”로 분류된 유형에 따른 각각의 병풍을 사용목적과 사용장소로 재분류하고 병풍 중에서도 기록화와 상상화 그리고 궁중에서 주로 사용된 병풍은 기타병풍으로 나눈다. 한국 샤머니즘 관점에서 “화복병풍”의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병풍에 나타난 문양에서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복을 바라는 염원이 문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의 기본이 되는 공통의 세계관 및 가치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병풍의 샤머니즘 문양은 선조들의 일상이 반영된 “원본”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일정한 형태가 원형적 가치는 유지된 채 지속적으로 변용, 변화하면서 시대에 맞게 거듭나고 있다. 새로운 문화 혹은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원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끊임없는 순환, 반복을 통해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화복병풍의 샤머니즘 문양은 앞서 살펴본 현대사회의 한국적 샤머니즘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도 일상 곳곳에 면면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표 4] 화복병풍과 기타병풍의 분류

종류		사용목적	사용장소	비고
화복병풍	혼병풍	부귀영화, 자손의번성	혼례장	
	노안도병풍	노후의 안락함 기원	안방	
	백수백복도병풍	장수와 행운	안방	
	문방도병풍	입신출세	선비의 방	
	어해도병풍	다산 다복	신혼부부방	
	화조화병풍	쌍복	신혼부부방	
	모란도병풍	장명부귀	안방	
	어좌병풍	장생불사, 영복	용상뒤	
	백동자도병풍	득남과 무병장수	교태전	
	십장생도병풍	장생불사, 장수	교태전, 용상뒤	
기타병풍	침병풍	숙면기원	머리맡	
	연병풍	먼지나 먹이 튀는 것을 방지	벼루머리	
	수병풍	방안을 아름답게 장식	방안	
	의궤도병풍	국중의 예법과 규모 등을 기록	보관	기록화
	궁궐,지리도병풍	궁궐과 성곽의 모습을 기록	보관	기록화
	행렬도병풍	국가 공식행사 기록	보관	기록화
	계연병풍	도리 및 인륜의 법을 기록	공부방	
	경직도병풍	농경과 길쌈을 홍보, 왕자의 교육	용상 뒤	
	송덕병풍	기념	보관	
	군선도병풍	영복	방안	상상화
	평생도병풍	감계적 목적	보관	기록화

4.3.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

[표4]에서 분류한 “화복병풍”, “기타병풍”중에 앞서 정의했던 샤머니즘 문양이 포함된 “화복병풍”을 6복인 “장수”, “쌍복”, “자복”, “재복”, “녹복”, “영복”에 따라 재분류 하였다. 샤머니즘 문양으로 분류된 병풍은 ‘장수’에 관련된 어좌병풍, 백수백복도병풍, 십장생도병풍, 백동자도병풍이며 주요문양은 “십장생, 연꽃, 모란”이 있고, ‘쌍복’에 관련된 병풍은 어해도병풍, 혼병풍, 백수백복도병풍, 화조화병풍이며 주요문양은 “잉어”, “원앙”, “나비”이며 ‘자복’에 관련된 백동자도병풍, 어해도병풍, 혼병풍이며 사용된 주요문양은 “물고기”, “모란”, “석류”이다. 또한 ‘재복’은 모란도병풍이며 주요문양은 “모란”이고, ‘녹복’은 문방도병풍, 백수백복도병풍, 어해도병풍이며 주요문양은 “책, 잉어”이며 마지막으로 ‘영복’은 노안도병풍, 어좌병풍, 십장생도병풍이고 주요문양은 “십장생”이다.

[표 5] 샤머니즘 문양으로 구분한 병풍

구분	병풍종류	사용문양	주요문양
장수	어좌병풍	산, 해, 달, 소나무, 물, 십장생	해, 달, 소나무, 물
	백수백복도병풍	연꽃, 파초. 소나무, 매화, 모란	
	십장생도병풍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백동자도병풍	연꽃, 파초, 소나무, 매화, 모란	
쌍복	어해도병풍	잉어, 게, 메기, 새우, 조개, 복어, 바위	잉어, 모란 나비
	혼병풍	모란, 꽃, 나비, 석류	
	백수백복도병풍	福, 壽	
	화조화병풍	모란, 까치, 매화, 원앙	
자복	백동자도병풍	연꽃, 파초, 소나무, 매화, 모란	물고기 모란 석류
	어해도병풍	잉어, 게, 메기, 새우, 조개, 복어, 바위	
	혼병풍	모란, 꽃, 나비, 석류	
재복	모란도병풍	모란, 바위	모란
녹복	문방도병풍	책, 꽃병, 펜, 연적	책,잉어
	백수백복도병풍	福, 壽	
	어해도병풍	잉어, 게, 메기, 새우, 조개, 복어, 바위	
영복	노안도병풍	기러기, 갈대	십장생
	어좌병풍	산, 해, 달, 소나무, 물, 십장생	
	십장생도병풍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	

4.4. 병풍에 나타난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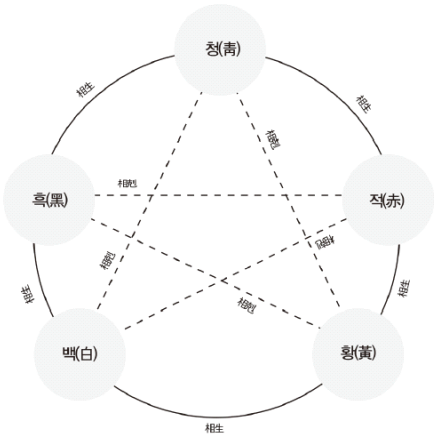
병풍에 나타난 6복인 “장수”, “쌍복”, “자복”, 재복”, “녹복”, “영복”으로 분류한 샤머니즘 문양을 시각언어적 요소인 형태, 레이아웃, 색채에 따라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형태면에서는 무기교적인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선과 모양이 그것이다. 또한 정교한 표현기법을 이용한 세밀하고 정밀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과감한 생략이나 과장도 볼 수 있다. [그림9]잉어문양, 나비 문양과 [그림10]기러기문양을 보면 자유롭고 비정형의 선과 형태가 보여진다. 서구의 기하학적이며 단순한 형태와는 상반된다. 난형(卵形), 원형의 선은 형태 심리학적인 선으로, 종교적·심리적·정신적인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6]모란문양, [그림8]해, 달, 소나무 문양에서는 대담한 생략과 과장을 통해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독창적인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둘째, 레이아웃은 주로 사선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문방도 병풍처럼 역원근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9]잉어문양, 나비문양과 [그림10]기러기 문양에서는 사선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극적 긴장감과 역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7]책문양은 서책, 붓, 벼루, 화병, 모란 등의 다양한 기물들이 기하학적인 입체구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물들 상호간의 균형, 조화, 비례를 이루며 독특한 입체감을 보여준다. 특히 병풍 뒤쪽에서 본 것처럼 느껴지는 역원근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한 공간 질서의 전복과 왜곡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구도와 기법은 우주적 질서를 초월하여 복을 바라는 주술성과 기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 시킨다. 이외에도 [그림8]의 해, 달, 소나무를 산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고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셋째, 색채에서는 상생상극원리의 질서에 따르는 오방색과 오간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 모자라면 생하고, 넘치면 극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 원리중 상생에 따르면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본질 자체를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반면, 상극원리인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은 서로간에 억제와 제약을 통해 본질의 형상을 도태시키고 파괴한다. 이를 오방색에 적용시켜 도식화하면 다음[그림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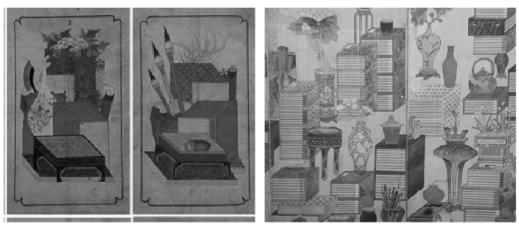
[그림 5] 오방색의 상생·상극 관계도

이러한 서로간의 상생 또는 상극의 사상적인 영향으로 한복이나 단청에서 오방색 이외에 한두 가지 색을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기본 오정색인 청, 적, 황, 백, 흑의 순서로 이어지는 상생의 색을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상극은 피한다. 이는 한국 전통 문화의 기본색으로써 한국의 민족적인 정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형성하였으며, 상징적 또는 주술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전통색은 병풍의 한국샤머니즘 문양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전통회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전통회화는 수묵위주로 사용하면서 채색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병풍의 문양에서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주술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6]모란 문양의 모란잎, 화병 그리고 [그림8]해, 달, 소나무 문양의 산, 하늘, 물의 녹색과 청색은 [그림6]의 붉은 모란꽃 색과 [그림8]의 소나무, 해의 색인 적색과의 강렬한 원색대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주술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색채는 목생화(木生火)의 원리에 의한 극대비 색채이다. [그림8]의 잉어문양, [그림21]의 기러기문양에서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영험함과 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냈다. [그림7]에서는 문양의 배경과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황색에 주목한다. 우주의 중심을 뜻하는 황색은 청색의 붉은색과의 상극관계를 융화시키기 위해 서가와 동일 색상인 갈색의 문양을 패턴 형태로 넣음으로써 적생황(赤生黃), 청생적(靑生赤)의 상생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샤머니즘 문양에서는 형태, 레이아웃, 색채에서 동일하게 염원을 담은 주술성과 화복에 대한 상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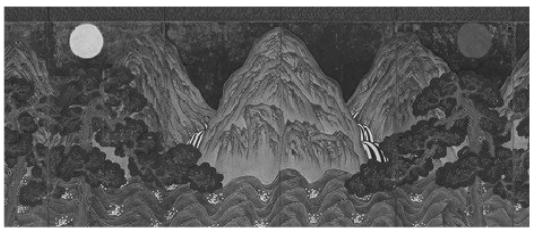
[표 6] 한국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

분류	표현	의미
형태	•무기교적인 형태 (자유로운 선과 형태) •과감한 생략과 과장	해학미, 초월성
레이아웃	•사선구도 •다시점원리 역원근법	극적 긴장감 유발 역동성, 입체감 표현 주술성, 상징성 극대화
	•좌우 대칭구도	시선집중 효과 시각적 안정감
색채	•오방색, 오간색 사용 •강렬한 원색의 대비	주술성, 상징성, 염원
	•저명도, 저채도 색채	영험함, 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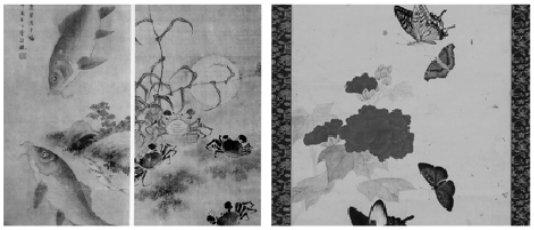
[그림 6] 모란 문양



[그림 7] 책 문양



[그림 8] 해, 달, 소나무 문양



[그림 9] 잉어 문양(좌), 나비 문양(우)

[그림 10] 십장생 문양(좌), 기러기 문양(우)

5. 결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전통문양은 새로운 형태 또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양은 본연의 상징성이나 의미는 퇴색되고 단순한 외적 형태나 칼라의 사용에만 그쳐왔다. 이는 서구 중심의 제도화된 시각문화의 탓도 있겠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한 자(自)문화 시각언어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적 시각언어를 찾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 한국 문화의 토대를 이루고 한국인의 내면 정신세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하게 변화 및 발전해 온 샤머니즘을 고찰하고 “한국 샤머니즘”이라는 기준점으로 “화복병풍”과 “기타병풍”으로 분류하고 다시 한국 샤머니즘 6복의 관점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하여 도출된 병풍의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 레이아웃, 색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첫째, 형태 면에서는 자유분방한 선이 만들어내는 무기교적인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건조하면서 기하학적인 단순 형태와는 상반된다.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과감한 생략과 과장을 통한 해학적 형태도 볼 수 있었다.

둘째, 레이아웃은 사선 구도나 다시점 원리에 입각

한 역원근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극적 긴장감과 역동성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역원근법으로 표출되는 독특한 입체감은 현실 속 공간 질서의 전복과 왜곡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근본을 초월하여 복을 바라는 주술성과 염원 및 문양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 시킨다.

셋째, 색채 면에서는 주로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과 오간색이 사용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강렬한 원색계통의 붉은색이 청색 및 녹색과 대비를 이루면서 생명력과 주술성을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저채도 저명도의 색채를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영험함과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샤머니즘 문양"을 한국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국 샤머니즘 문양의 시각성을 발전시켜 모티프를 도출하고 한국만의 독창적이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개발된 브랜드는 샤머니즘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적용하여 일상 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에 적용·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시리즈를 개발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디자인의 시각언어를 정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권영필 외 지음, 한국의 미를 다시 읽다, 돌베개, 2005
2.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체계, 교보문고, 1993
3. 김융희, 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4. 김철순, 한국민화논고, 예경산업사, 1991
5.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6.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7.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8. 김태곤, 한국무신도, 열화당, 1985
9.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10.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11. 윤열수, KOREAN ART BOOK 민화 I , 예경, 2000
12. 윤열수, 꿈꾸는 우리 민화, 보림출판사, 2005
13. 조흥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4.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1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도록IX, 옛 그림을 만나다, 서울역사박물관, 2009
16. 데이비드라우어,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17. 이원규, 주술과 종교:인류학적 및 사회학적 견해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1985, 37, 6
18. 이원규, 주술과 종교 : 인류학적 및 사회학적 견해, 한국신학연구소, 1982, 37, 6
18. 정병모, 민간연화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5 7, 5
19. 정병모, 민화와 민간연화, "강좌미술사"한국불교미술사학회,1995, 7, 4
20. 김성인, 한국 무속화 연구 : 조선후기 서민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21. 김진용, 로고의 주술적 시각 특성: 고대 문양, 부적과의 비교 고찰을 통한 로고 연구, 고려대학교, 2006